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8.8.27.(월) / (총 6 매)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과 장	조 은 희	전 화	043-719-7120
담당자	송 정 속		043-719-7117

유행성각결막염 지속 증가 예방수칙 철저히 준수 당부

- ◇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 급격한 증가세 지속
 - 33주(8월 12일~18일) 의사환자 분율 41.3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5%
 - 특히, 0~6세에서 높음(의사환자 분율 : 0~6세 124.7명, 7~19세 69.3명, 20세 이상 31.2명)
- ◇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 ◇ 유행성각결막염 의심증상 시에는 의료기관 진료 받고, 타인 접촉하지 않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안과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행성각결막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전국 92개 안과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행성각결막염 및 급성출혈성결막염 표본감시

○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은 2018년 33주(8월 12일~18일) 41.3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전년 동기(33주 24.8명) 대비 166.5%이며, 30주(7월 22일~28일) 이후 지속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018년 의사환자 분율 : 30주 24.9명 → 31주 28.5명 → 32주 32.4명 → 33주 41.3명

* 2017년 의사환자 분율 : 30주 23.3명 → 31주 22.4명 → 32주 25.4명 → 33주 24.8명

*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 =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수 / 외래환자수) x 1,000

○ 33주의 연령별 의사환자 분율은 0~6세가 124.7명(외래환자 1,000명)으로 가장 높았고, 7~19세 69.3명, 20세 이상이 31.2명이었다.

- 유행성각결막염은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매년 가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수건, 베개, 안약, 화장품 등 개인용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유행성각결막염 감염예방 수칙

-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
- ♣ 눈이나 얼굴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기
- ♣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기

- 질병관리본부는 유행성각결막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의심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이는 완치 시까지 등원을 제한하는 등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
1. 유행성각결막염 발생현황
 2. 유행성각결막염 대상자별 예방 수칙
 3. 유행성각결막염 개요
 4. 유행성각결막염 Q&A

붙임 1

유행성각결막염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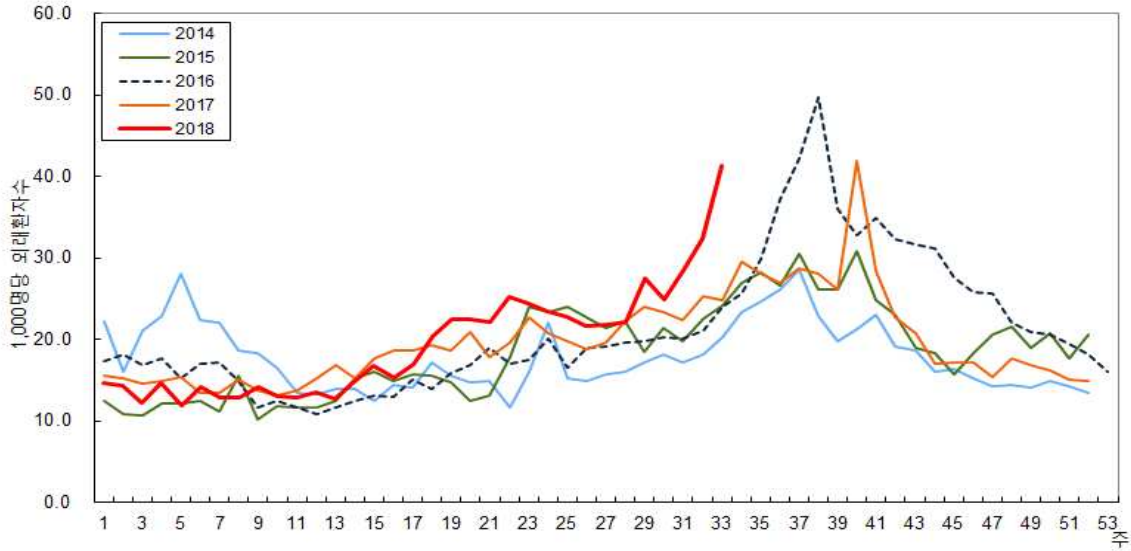


그림 1. 2014-2018 연도별 주별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

표 1. 주별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

연도	주(Week)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018	의사환자	24.5	23.4	22.8	21.6	21.8	22.2	27.5	24.9	28.5	32.4	41.3
2017	분율(명/1,000)	22.7	20.7	19.8	18.8	19.7	22.2	24.0	23.3	22.4	25.4	24.8

* 의사환자 분율(%) = 안과감염병 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1,000

※ 안과감염병은 안과개원의 92개 표본감시로 운영, 2013년 36주부터 기관당 환자수에서 환자분율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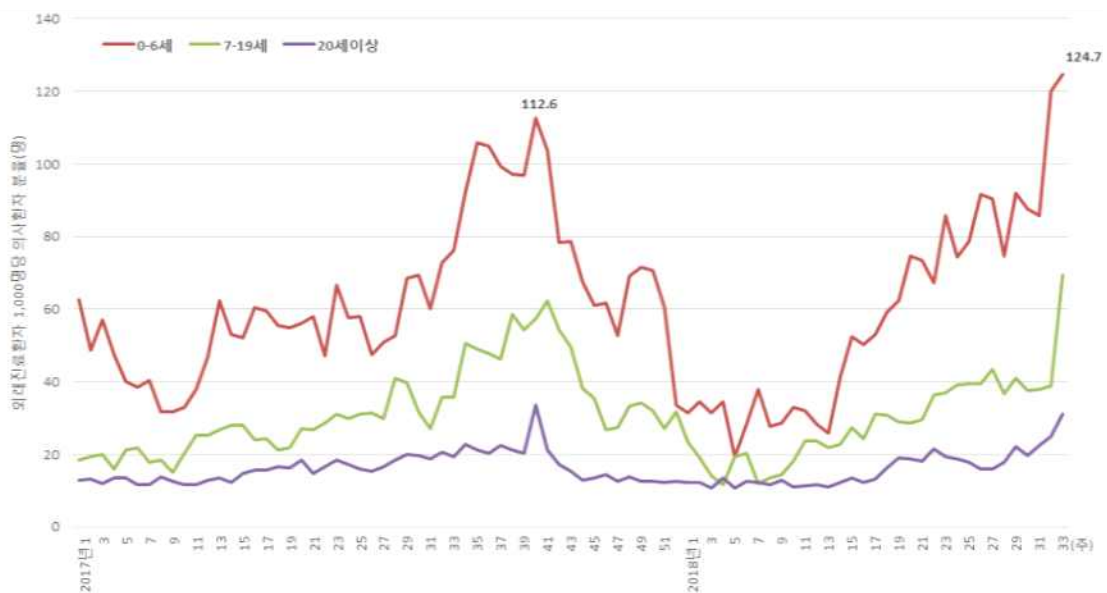


그림 2. 2017-2018 유행성각결막염 주별 연령별 발생현황

붙임 2 유행성각결막염 대상자별 예방 수칙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대상) 예방수칙

- 원아에게 올바른 손씻기를 철저히 교육한다.
 -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을 씻기
- 원아에게 눈을 만지지 않도록 교육한다.
- 수건과 이불, 컵 등은 개인용으로 사용하게 한다.
- 원아의 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손으로 만지지 않게 하고 즉시 안과진료를 받도록 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는 완쾌될 때까지 집에서 쉬도록 권장한다.

□ 일반 예방수칙

① 일반

-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 * 특히 전화기, 마우스, 문고리 등을 만진 경우 즉시 손을 씻는다.
-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 특히 주변에 눈병환자가 있을 때에는 수건, 비누를 환자와 따로 사용한다.

② 환자

- 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만지지 말고 즉시 안과진료를 받는다.
- 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다.
- 안약은 감염된 눈에만 점안하며 타인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수영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는다.
 - * 학생의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학원 등에 가지 않는다.

붙임 3

유행성각결막염 질병개요

질병명	유행성각결막염 (Epidemic Keratoconjunctivitis, EKC) (질병코드 : ICD-10 B30.0)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안과질환
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데노바이러스 (주로 8형, 19형, 37형)
전파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접촉 : 눈 분비물 등과 접촉 간접 접촉 : 수건, 침구물, 세면기구 등 개인용품과 접촉 수영장 등 물을 통한 전파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일 ~ 14일
호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내내 발생하나 주로 여름에 유행
호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집단 유행 위험이 큼
임상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안의 출혈과 안검 부종, 안통, 눈물, 눈곱, 눈의 이물감, 눈부심, 눈꺼풀 부종, 결막 여포, 이개전립프절병증 각막 상피하 점상 혼탁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료제는 없음 대증요법
합병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력저하, 안구 건조증 등
예방	<p>< 일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을 씻기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기 수건이나 베개,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기 <p>< 환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는 외출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에 가지 않기 눈병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기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로 세탁하기

붙임 4 유행성각결막염 Q&A

Q1. 유행성각결막염이란 무엇인가요?

-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이며,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결막염으로 주요 증상으로 양 눈의 출혈, 동통, 눈곱, 눈의 이물감, 눈물, 눈부심 등이며 2주 이상 지속됩니다.

Q2. 유행성각결막염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누구든지 유행성각결막염에 걸릴 수 있으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유행할 수 있습니다.

Q3. 유행성각결막염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 일반적으로 사람간의 접촉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 환자가 눈을 만지는 등으로 오염된 손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 감염자가 손을 씻지 않은 채 물건의 표면을 오염 시킬 때 전파됩니다.
- 발병 후 약 2주간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Q4. 유행성각결막염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 특별한 치료제는 없으며 증상 완화를 위한 냉찜질 등 대증 치료와 이차 세균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각막 상피 하 혼탁 발생 시 점안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보통 발병 후 2주(1주~6주) 내에 증상이 없어집니다.

Q5. 유행성각결막염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강화해야 합니다.
 - 자주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
-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습니다.
- 수건이나 침구,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및 학교 등 공동시설에 감염자가 있을 경우)